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 간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비교

노 연 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21 사업단

강 지 현[†]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만 3세에서 5세 유아 238명의 어머니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제 경제수준은 해당연도 보육비 지원정책에 따른 보육비 지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경제수준, 정신건강(우울/불안) 및 양육행동에 관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자녀의 문제행동 자료는 어머니와 교사로부터 수집되었다.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상/하에 따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개의 집단은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이 모두 높을 경우 '일치高', 둘 다 낮을 경우 '일치低', 실제 경제수준은 높지만 지각된 경제수준은 낮은 경우 '지각低', 마지막으로 실제 경제수준은 낮지만 지각된 경제수준은 높은 경우 '지각高' 집단으로 나뉘었다. 주요 결과로는,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와 지각低 집단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에 있어서는 일치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대적 양육에 있어서는 일치低와 지각低 집단이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중 어머니가 평가한 내재화 문제의 경우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문제에서는 일치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사가 평가한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와 외현화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외현화 문제에서 일치低 집단이 지각高 집단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실제 경제수준, 지각된 경제수준, 어머니의 정신건강,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문제행동

[†] 교신저자 :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counsel4u@dongduk.ac.kr

보건복지가족부(2009a)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 청소년 중 약 7.8%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근래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률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아동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가족 기능의 와해가 빈곤 가정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보건복지가족부, 2009b), 빈곤 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모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사회계층 자체가 자녀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주거나 학업 등의 성취를 촉진시켜 주는 방향으로 연결됨으로써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박영신, 김의철, 2009).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개인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반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대처자원은 덜 가지게 된다(Schultz & Shaw, 2003). 더욱이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스트레스는 양육자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참을성 있으며 공감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직접적인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끌기도 한다(Wahler & Dumas, 1989). 또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적대적인 귀인 편향과 부적응적 반응을 양산하여 원활한 정보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

을 양산하게 되고(Weiss, Dodge, Bates, & Pettie, 1992), 품행문제를 비롯한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Evans & English, 2002). 이렇듯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 적응, 나아가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라 하더라도 객관적 지위는 주관적 지위만큼 개인의 정신건강 및 행복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못한다. 구재선과 서은국(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행복은 객관적 소득보다는 주관적 소득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스스로 고소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가 높았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와 무기력함을 더 적게 느꼈으며, 연령, 외향성, 학력 및 객관적 경제수준을 통제하였을 때도 주관적 소득과 행복의 상관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이 빈곤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증가액은 사실상 행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나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내의 개인의 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개인의 행복 수준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Myers, 2007), 그리고 사람들이 월급이 오르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처음엔 기쁨을 느끼지만 대부분 약 3개월이면 변화에 적응해서 증가된 소득수준이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 더 이상 만족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Diener, 2000)는 실제적인 경제 소득이 개인의 행복이나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정신

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Campbell et al., 1996; Evans & English, 2002; Schultz & Shaw, 2003; Wahler & Dumas, 1989; Weiss et al., 1992) 및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구재선, 서은국, 2011; 박영신, 김의철, 2009; Diener, 2000;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Myers, 2007)을 토대로 실제 경제수준보다는 지각된 경제수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 보고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문제행동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정신병리

열악한 환경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연구물들을 통합한 Luthar(1999)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부모의 정신 병리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연구물의 상당 부분은 우울증과 물질남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빈곤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초기 아동기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다고 보고되며(Alpern & Lyons-Ruth, 1993; Reis, Barbera-Stein, & Bennett, 1986),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의 히스패닉과 아시아 아메리칸 여성들의 60-70%가 임상적으로 우울 진단이 내려질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이다(Wasserman, Rauh, Brunelli, Garcia-Castro, & Necos, 1990). 다른 연구에서는 빈곤 계층의 임신부와 가임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우울증상이 중산층 표본에 비해서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Hobfoll, Ritter, Lavin, Hulsizer, & Cameron, 1995).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인 개인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반면,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대처자원은 덜 가지게 되어 우울에 취약해지기 쉽다(Schultz & Shaw, 2003). Luthar(1999)가 제시한 빈곤한 가정의 부모 병리의 또 다른 형태는 불법 약물의 남용이다(Klerman, 1994). 이 영역의 관련 연구 역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왔었다(Luthart, Cushing, & McMahon, 1997). 약물 남용 어머니들은 양육상에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약물 문제가 없는 부모에 비해서 어린 자녀들의 단서를 덜 자주 알아차리고 그것을 의사소통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 또한 보다 나이 든 아동들에게는 부정-강화를 활용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을 사용한다.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약물 남용의 문제보다는 우울의 문제가 보다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둘 다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Shaw & Vondra, 1995; Weissman, Warner, Wickramaratne, Moreau, & Olfson, 1997),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기제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주 화를 표현하여 결국에는 강압적 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슬픈 정서가 우울한 사람들의 핵심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분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표현한다(Moreno, Fuhrman, & Selby, 1993). 따라서 우울

한 양육자들은 이러한 분노를 그들의 자녀에게 표출하여, 더 자주 비난하고 자녀들과 더 많이 강압적인 순환(coercive cycle)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Dumas & Serketich, 1994). 두 번째 기제는 어머니의 우울이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변화시켜서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은 종종 부부 갈등과 스트레스와 함께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미해결된 갈등에 노출되면서 분노 단서에 예민해지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Cummings & Zahn-Waxler, 1992; El-Sheikh, Cummings, & Reiter,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머니의 우울이 가족 환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분노 표현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기제는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갖는 사회-인지 유형 중 아동의 사회적 장면에 대한 자기-귀인 성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Shultz, Izard, & Ackerman, 2000).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들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유능감에 대한 평가 수준이 낮다. 또한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가진 어머니의 유아들이 분노 귀인 편향을 가졌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스트레스는 양육자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참을성 있으며 공감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정서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의 직접적인 분노 표현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끌기도 한다(Wahler & Dumas, 1989). 이러한 적대적이고 거절하는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과 관련을 보이는 것

로 보고되었다(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Hart, Dewolf, Burt, 1992; Kuczynski & Kochanska, 1995; Rose-Krasnor, Rubin, Booth, & Coplan, 1996).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과도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Kim, Ge, Brody, Conger, Gibbons과 Simons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적대적인 양육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물론이고, 내재화 문제행동의 증가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는 비밀관성, 엄격함, 방임 등의 부모양육과 아동기 문제-특히 비행과 공격성 문제-의 관련성을 확인해주고 있다(Bandura, & Walters, 1959; Glueck & Glueck, 1950; McCord, McCord, & Howard, 1961). Shaw와 Bell(1993)은 이러한 비밀관적이고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방임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방임적 태도는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통해 나타나는데, 영아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어머니의 능력을 방해하고, 영아의 애착형성과 적응의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Shaw & Vondra, 1995). 정상군과 임상군을 비교한 연구 결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가 그 자녀들과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오랫동안 하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모호하고 비밀관적으로 반응함을 보여주었다(Delfini, Bernal, & Rosen, 1976; Lobitz & Johnson, 1975; Patterson, 1976; Snyder, 1977). 아울러 이들 부모는 적대적인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부드럽게 지시하며, 달래는 것을 통해 이런 행동을 강화하기도 한다(Forehand, Gardner, & Roberts, 1978; Patterson & Fleischman, 1979; Wahler &

Nordquist, 1973). 문제를 보이는 미취학 유아와 학령기 아동에 대한 치료효과 검증 연구는 부모들이 비적응적인 양육 기술 대신 분명하고 단호하며 일관적인 방법을 배우면 자녀들이 공격적이고 불순종적인 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Forehand, Wells, & Griest, 1980; Webster-Stratton, Kolpacoff, & Hollisworth, 1988). 유아의 파괴적 행동의 단계를 구성하는 부모 양육방식의 구체적인 차원을 밝혀낸 연구도 있는데 Kuczynski, Kochanska, Radke-Yarrow와 Girmius-Brown(1987)은 비밀관성, 간접적인 지시의 사용, 실행 부족, 통제해야 될 순간에 정감을 보여주는 것 등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은 1.5세-3.5세 유아들이 보이는 반항과 불순종의 정도나 질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아의 문제행동

빈곤아동 중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Garmezy, 1991; Werner & Smith, 1992),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의 성장경험이 유아의 발달과 궁극적인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오고 있다(예: 광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Feldman, Dollaghan, Campbell, Kurslasky, Janosky, & Paradise, 2000). 1960-70년대의 초기 연구들에서는 주로 빈곤가정에서의 성장경험이 신체 및 언어를 포함한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빈곤 계층 아동 중 10-20%가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으며(Malone, 1971), 출생 시부터 신체상의 발육도 부진하며, 언어발달도 부진하다고 보고하였다(예: Whiteman & Deutsch, 1968 등).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회정서 영역에서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e.g., McLoyd & Garcia Coll, 1994). Costello, Angold, Burn, Stangl, Tweed, Erkanli와 Worthman(1996)의 연구에서는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주요한 정신장애 진단의 가능성이 세 배나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빈곤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질병발생률 1.4배, 학력부진 비율 2.2배, 술 담배 등 비행행동 2배, 가출 2배 등 여러 부적응지표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최선희 김희수, 2004; 드림스타트 사업보고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열악한 가정환경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문화적 소외와 정서적 발달에 저해를 가져와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광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서유경, 2002).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품행문제를 비롯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물론이고,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는데(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Evans & English, 2002), 관련 연구결과들은 소득 자체가 아동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가계 저소득이 부모나 환경의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적대적인 귀인 편향과 부적응적 반응을 양산하여 원활한 정보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양산하게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Weiss, Dodge, Bates, & Pettit, 1992). 이와 관련하여 박영신과 김의철(2009)은 가정환경 변인에서 부모의 사회계층 자체가 자녀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주거나 학업성취를 촉진시켜 주는 방향

으로 연결이 될 때만이, 부모의 사회계층은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Campbell et al., 1996; Evans & English, 2002; Schultz & Shaw, 2003; Wahler & Dumas, 1989; Weiss et al., 1992) 및 소득과 행복에 관한 연구들(구재선, 서은국, 2011; 박영신, 김의철, 2009; Diener, 2000;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Myers, 2007)을 토대로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문제행동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다음의 몇 가지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지위의 실제 수준과 지각된 수준에 따른 집단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실제 및 지각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온정적 양육행동과 적대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에서의 차이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 행동의 평가는 어머니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교사가 지각한 문제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보원의 보고를 비교하여 측정의 오류나 정보원의 편향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정보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정보원들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일관되게 보고되는 결과나 서로 상충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각을 맥락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특정 대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강지현, 오경자, 2009).

방 법

연구 대상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12기관에서 만 3세에서 5세 이하 유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성실한 응답을 보이고 연령이 본 연구에 적절한 277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중 실제 소득수준 정보가 없는 32명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관한 질문에 무응답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23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자가 131명(55.3%), 여자가 106명(44.7%)이었고 평균 월령은 52.97개월로 약 4년 5개월이었다.

실제 경제수준은 자료가 수집된 2007년 보육비 지원정책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보육비 지원 정도를 따랐으며 100% 지원을 받는 1층에서 40% 지원을 받는 5층(만5세아 포함)과 보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층으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경제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경제수준에 비해 해당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상, 중상, 중중, 중하, 그리고 하 중에 선택하게 하였다. 실제 경제수준의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하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보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지각된 경제수준의 경

우 상이 없었으므로 중상과 중중으로 응답한 분하였다.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 ‘상집단’, 중하와 하로 응답한 ‘하집단’으로 구 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하

표 1.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분포

		지각된 경제수준					
		하		상		각 층별	
		하	중하	중중	중상	전체%	
실 제 경 제 수 준	하	빈도	0	4	0	0	4
		보조금수준 내 %	.0%	100.0%	.0%	.0%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0%	4.5%	.0%	.0%	1.7%
		1층 전체%	.0%	1.7%	.0%	.0%	1.7%
	2층	빈도	13	13	6	0	32
		보조금수준 내 %	40.6%	40.6%	18.8%	.0%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32.5%	14.8%	5.9%	.0%	13.4%
		2층 전체%	5.5%	5.5%	2.5%	.0%	13.4%
	3층	빈도	1	1	5	0	7
		보조금수준 내 %	14.3%	14.3%	71.4%	.0%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2.5%	1.1%	4.9%	.0%	2.9%
		3층 전체%	.4%	.4%	2.1%	.0%	2.9%
	4층	빈도	3	14	11	0	28
		보조금수준 내 %	10.7%	50.0%	39.3%	.0%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7.5%	15.9%	10.8%	.0%	11.8%
		4층 전체%	1.3%	5.9%	4.6%	.0%	11.8%
	5층	빈도	15	27	27	1	70
		보조금수준 내 %	21.4%	38.6%	38.6%	1.4%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37.5%	30.7%	26.5%	12.5%	29.4%
		5층 전체%	6.3%	11.3%	11.3%	.4%	29.4%
상	빈도	8	29	53	7	97	
	보조금수준 내 %	8.2%	29.9%	54.6%	7.2%	100.0%	
	실제 경제수준 내 %	20.0%	33.0%	52.0%	87.5%	40.8%	
	일반 전체%	3.4%	12.2%	22.3%	2.9%	40.8%	
전체	빈도	40	88	102	8	238	
	실제 경제수준 내 %	16.8%	37.0%	42.9%	3.4%	100.0%	

표 2.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빈도

	일치高	지각高	지각低	일치低	전체
빈도	60	50	37	91	238
%	25.2	21.0	15.5	38.2	100.0

고자,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빈도를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누었다.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이 모두 상인 집단을 ‘일치高’, 실제는 상집단이나 지각된 경제수준은 하집단일 경우 ‘지각低’, 실제는 하집단이나 지각된 경제수준은 상집단일 경우 ‘지각高’, 그리고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이 모두 하인 집단을 ‘일치低’로 구분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분포는 표 1, 표 2와 같다 추가적으로 집단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각각 $F(3, 233)=4.395, p<.01, F(3, 230)=p<.01$, 일치高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측정도구

부모의 실제 소득과 지각된 경제수준

실제 소득. 실제 경제수준은 자료가 수집된 2007년 보육비 지원정책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보육비 지원 정도를 따라 구분하였다. 이때 100% 지원을 받는 1층으로, 40% 지원을 받는 층은 5층(만 5세아 지원 포함)으로 구분되며 보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층은 일반에 해당하였다.

지각된 경제수준. 부모용 설문지에 스스로 지각한 경제수준을 표기하도록 하여 얻었다. 지각된 경제수준은 상류, 중상, 중중, 중하, 하류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정신병리

우울.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신승철 등(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모두 20개의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0(전혀 없었다)-3(매일 있었다)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고, 내적합치도 $\alpha=.92$ 이었다.

불안. 어머니들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신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 Gorsuch와 Lushene (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 중 특성 불안을 재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1(거의 그렇지 않다)-4(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0-80점이고, 내적합치도 $\alpha=.91$ 이었다.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Rohner

(1986)에 의해 개발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를 전 수연(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PARQ는 온정/애정을 측정하는 20문항, 공격성/적대감을 측정하는 15문항, 무시/무관심을 측정하는 15문항, 모호한 거부/분화되지 않은 거부를 측정하는 10문항 등 4개 하위차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Yune과 Kang (2009)이 요인부하량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문항을 중심으로 온정/애정(warmth/affection) 양육요인 27문항, 공격성/적대감(aggression/hostility) 양육요인 15문항, 거절/방임(reject/neglect) 11문항 등 3개 요인을 추출한 구조를 따른 것을 참조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온정/애정 양육행동과 공격성/적대감 양육행동 요인만을 사용하였고, 각각 온정적 양육과 적대적 양육으로 명명하였다. 온정적 양육요인은 ‘나는 우리 아이의 좋은 점과 잘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를 칭찬한다’ 등 자녀에게 긍정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행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양육요인은 ‘나는 화가 났을 때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아이를 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때린다’ 등 아동에게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그러한 정서를 체벌이나 소리 지르기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포함된다. 온정적 양육행동과 적대적 양육행동 각각의 내적합치도 $a=.85$, $a=.91$ 이었다.

유아의 문제 행동

부모용.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전반적인 적응과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CBCL 중 본 연구에

서는 1.5-5세 연령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CBCL을 오경자와 김영아(2008)가 한국판으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 시기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기술한 99개의 문항과 개인 고유의 문제를 기재한 후 심각도를 표시하도록 한 3개의 문항을 합쳐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주의집중문제, 수면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증후군척도가 있다. 유아용 K-CBCL의 방식을 따라 정서적 반응성,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의 호소 점수를 합산하여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하였고, 주의집중문제와 공격적인 행동 점수를 합산하여 외현화 문제행동 점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용 K-CBCL은 각 문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가끔 그런 일이 있다), 2점(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등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평정한 유아용 K-CBCL의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a=.87$, $a=.89$ 로 나타났다.

교사용.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정한 TRF 중 1.5-5세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평정하도록 제작된 척도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K-TRF는 부모용 문제행동 항목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교사가 평정한 미국판 유아용 CBCL의 전체 신뢰도는 .97, 하위척도는 .73-.92였고, 국내 표준화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7, 하위척도는 .71-.96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간에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131, p<.05, r=.306, p<.001$.

분석방법

실제 경제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접근하고자, 실제 경제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의 빈도를 기준으로 각각 상하 집단으로 나누고(표 1),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일치高, 지각低, 지각高 및 일치低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 간 어머니의 우울/불안, 양육 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사후다중비교 분석(LSD 방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은 집단 간, 척도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z-점수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결 과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

단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의 차이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어머니의 우울 점수에 있어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34)=9.792, p<.001$. 지각低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M=.59, SD=1.25$), 다음으로 일치低($M=.14, SD=1.03$)와 지각高($M=-.29, SD=.80$) 집단 순이었으며, 일치高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M=-.36, SD=.69$). 집단 간 우울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이 지각低와 일치低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불안 점수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또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F(3, 234)=6.911, p<.001$, 우울 점수에서의 집단 간 차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는 경제수준의 실제와 지각이 모두 높은 일치高 집단과 실제 경제수준은 낮지만 지각된 경제수준은 높은 지각高 집단이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경제수준은 높지만 지각된 경제수준이 낮은 지각低 집단과 실

표 3.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수준(One-way ANOVA)

		1. 일치高	2. 지각高	3. 지각低	4. 일치低	df	F값	사후검증 (LSD 방식)
우울	M	-.36	-.29	.59	.14	(3, 234)	9.792 ^c	3 > 1 ^c , 2 ^c , 4 ^a , 4 > 1 ^b , 2 ^a
	(SD)	(.69)	(.80)	(1.25)	(1.03)			
불안	M	-.30	-.28	.49	.12	(3, 234)	6.911 ^c	3 > 1 ^c , 2 ^c , 4 ^a , 4 > 1 ^b , 2 ^a
	(SD)	(.91)	(.80)	(1.12)	(1.02)			

a : $p<.05$, b : $p<.01$, c : $p<.001$

제와 지각 모두 낮은 일치低 집단이 가장 열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차이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다(표 4). 먼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있어서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 234)=2.869$, $p<.05$. 일치高 집단이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냈고($M=.24$, $SD=1.08$), 다음으로 지각高 집단($M=.13$, $SD=.79$), 지각低 집단($M=-.09$, $SD=1.02$), 일치低 집단($M=-.20$, $SD=1.01$)의 순이었다. 집단 간 차이에 있어서 일치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총점을 나타냈고,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적대적 양육행동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F(3, 234)=2.033$, $n.s.$, 다만 지각低와 일치低 집단이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에서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이 모두 낮은 일치低 집단보다 실제와 지각이 모

두 높은 일치高 집단이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냈고, 실제 경제수준은 낮으나 지각된 경제수준은 높은 지각高 집단이 온정적 양육행동에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적대적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와 지각低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어머니 평정과 교사 평정 비교

실제와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평정과 교사 평정 결과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표 5). 먼저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F(3, 234)=3.280$, $p<.05$. 지각低 집단이 가장 높은 총점을 나타냈고($M=.35$, $SD=1.46$), 다음으로 일치低($M=.11$, $SD=.96$)와 일치高($M=-.17$, $SD=.91$) 집단 순이었으며, 지각高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M=-.22$, $SD=.66$). 내재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일치高 집단과 지각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어머니가 평정한

표 4.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행동(One-way ANOVA)

		1. 일치高	2. 지각高	3. 지각低	4. 일치低	<i>df</i>	<i>F</i> 값	사후검증 (LSD 방식)
온정적 양육	<i>M</i> (<i>SD</i>)	.24 (1.08)	.13 (.79)	-.09 (1.02)	-.20 (1.01)	(3, 234)	2.869 ^a	1>4 ^b
적대적 양육	<i>M</i> (<i>SD</i>)	-.15 (.93)	-.16 (.94)	.20 (1.07)	.14 (1.02)	(3, 234)	2.033	

a : $p<.05$, b : $p<.01$

표 5.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One-way ANOVA)

		1. 일치高	2. 지각高	3. 지각低	4. 일치低	<i>df</i>	<i>F</i> 값	사후검증 (LSD 방식)
내재화 -어머니	<i>M</i> <i>(SD)</i>	-.17 (.91)	-.22 (.66)	.35 (1.46)	.11 (.96)	(3, 234)	3.280 ^a	1<3 ^a , 2<3 ^b
내재화 -교사	<i>M</i> <i>(SD)</i>	-.11 (.93)	.12 (1.23)	.09 (1.12)	-.22 (.82)	(3, 232)	1.628	
외현화 -어머니	<i>M</i> <i>(SD)</i>	-.21 (.93)	-.10 (.85)	.29 (1.35)	.10 (.93)	(3, 234)	2.414	1<3 ^a
외현화 -교사	<i>M</i> <i>(SD)</i>	.03 (1.14)	.13 (1.08)	.08 (1.19)	-.26 (.83)	(3, 232)	2.212	2>4 ^a

a : $p < .05$, b : $p < .01$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F(3, 234)=2.414$, *n.s.*, 일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치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대조적으로 교사가 평정한 내재화 문제행동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3, 232)=1.628$, *n.s.* 총점에 있어서 지각高 집단이 가장 높았고($M=.12$, $SD=1.23$), 일치低 집단이 가장 낮았다($M=-.22$, $SD=.82$). 교사가 평정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도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3, 232)=2.212$, *n.s.* 다만,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여 일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어머니 평정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 모두에서 지각低 집단이 일치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

다(부록 참조). 이에 반해 교사의 평정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에서만 부분적인 차이가 드러났는데,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의 평정과 교사의 평정을 비교해보면, 어머니가 평정한 문제행동에서는 지각低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지만 교사가 평정한 문제행동에서는 지각高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일치低 집단이 가장 낮은 문제 행동의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만 3세에서 5세 유아 238명의 어머니와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제 경

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상/하에 따라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지각低 집단에 비해 지각高 집단과 일치高 집단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른 세 집단보다 일치高 집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에 있어서는 일치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양호하였고, 적대적 양육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문제행동 중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일치高 집단과 지각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양호하였고,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일치高 집단이 지각低 집단보다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문제 행동은 내재화와 외현화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만 지각高 집단에 비해 일치低 집단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실제 경제수준의 높고 낮음보다 지각된 경제수준이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행동 및 유아의 문제행동 지각과 일관된 방향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시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경제수준 지각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실제에 비해 경제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의 경우 다른 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나타냈으며, 더욱이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모두 낮은 일치低 집단보다도 높은 수준의 우

울과 불안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감에서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이어져 이것이 우울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어머니의 개인특성이 제3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객관적으로는 자녀보육비에 대해서 정부보조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중위의 소득계층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즉 사회적 비교과정(social comparison process)을 많이 사용할수록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이러한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소득에 대한 만족은 누구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Agyle, 1999),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비교대상을 선택할 경우 소득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불만족이 우울과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개인특성으로 어머니의 낙관성(optimism)과 비관성(pessimism)이 제3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관적 안녕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보다 심리적 또는 성격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낙관성은 주관적 안녕을 예측하는 강력한 성격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09). 낙관성은 미래에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 정의되는 반면 비관성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 정의되며 (Scheier & Carver, 1985), 비관성은 1년 후의 불안, 신경증,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이지만 낙관성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질병 이후 건강의 회

복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신현숙, 2005). 어머니의 비관주의 성격은 경제수준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소득과 지각된 소득에 따른 집단별 양육행동의 차이에 있어서 온정적인 양육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온정적 양육행동은 일치高, 지각高, 지각低, 일치低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적대적 양육행동은 지각低, 일치低, 일치高, 지각高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온정적인 양육과 적대적인 양육은 단일 차원의 극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양육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적대적인 양육은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정서를 체벌이나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 온정적인 양육은 유아에게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가지며, 유아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온정적인 양육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이상적인 행동의 하나로서, 이러한 행동은 실제의 경제수준 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양육행동에 있어서 지각低와 일치低 집단이 일치高와 지각高 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적대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실제 경제수준 못지않게 경제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소득과 지각된 소득에 따른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머니의 보고와 교사의 보고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정에 의하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영역

모두에서 지각低 집단의 유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같은 차이는 교사의 보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적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부모가 가정환경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자녀에게도 결핍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편향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부정 편향이 있는 부모의 오지각 때문에 문제행동이 과잉평가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행동이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Kerr, Lunkenheimer, & Olson, 2007), 이럴 경우 교사와 부모의 평정간 차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유아의 진정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두 정보원의 평정이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부모 앞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두드러지게 하는 변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 일어나는 방식과 관련된다. 즉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지각과 불만족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자녀 및 가족 구성원 포함)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부정적 가설을 유발하고 그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만 집중함으로써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가설이 참이 될 수 있다. 결국 자녀의 일부 문제에 대한 선택적 지각이 적절한 자녀 양육을 방해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교사의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각高 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

이 일치低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머니의 보고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어머니의 평정치에서는 내재화와 외현화 모두 지각高 집단이 일치低 집단보다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지각高 집단이 상황을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의집중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겉으로 드러나고, 환경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교사의 평정이 부모의 평정에 비해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유아의 적응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만 파악했는데, 유아의 역량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가 종합될 필요가 있다. 즉, 소극적 의미의 적응인 문제행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 등 장차 이들의 적응에 기반이 될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그 속성상 자기보고보다는 실험실 상황에서 적절한 연관 과제를 시행하는 절차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연구결과는 1회적 평가에 의한 것인지만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의 차이가 유아의 적응에 초래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을 함수화하는 종단연구가 계획될 필요가 있다. 종단연구에는 유아들의 취학 이후의 적응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유아의 취약함과 강점이 어떤 역할

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취학한 후에라야 학업적 성취를 본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어머니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유아의 문제행동 지각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다면, 어머니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 개선과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 지역 일부의 유아 부모와 교사들에 대해서만 실시되었기에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표집된 대상의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경제수준 못지않게 지각된 경제수준이 유아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되었지만, 경쟁이 가속화되고 경제적 수준이 양극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실제의 경제수준보다 지각된 경제수준이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와 반대로 실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개인들도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물질적인 상태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빈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소득이 양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마련도 시급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물질 중심의 경쟁이 아닌 심리적 자산과 소양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심리학과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 (2009).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잠재성장곡 선모형을 적용한 단기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0(4), 85.
- 곽금주, 김정미, 유제민 (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3), 83-98.
-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구재선, 서은국(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권석만 (2009). *긍정심리학*. 학지사.
- 김정택 (1978). 특성 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선별도구 개발*.
- 서유경 (2002).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이호영, 유계준 (1991). 한국에 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4), 752-767.
-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 오경자, 김영아 (2008). CBCL 1.5-5 유아 행동 평가척도-부모용 매뉴얼. (주)휴노컨설팅: 서울.
- 전수연 (2002). 아동 기질과 부모 양육 형태에 따른 행동발달의 차이: 발달적 맥락에 따른 '조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 김희수 (2009).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A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lpern, L., & Lyons-Ruth, K. (1993). Preschool children at social risk: Chronic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at school and at home.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5, 371-387.
- Argyle, M. (1999). Causes and correlates of happines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andura, A., & Walters, R. H. (1959). *Adolescent*

- aggression*. New York: Ronald.
- Campbell, S. B., Pierce, E. W., Moore, G., Marakovitz, S., & Newby, K. (1996). Boy's externalizing problems at elementary school: Pathways from early behavior problems, maternal control, and family stres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701-720.
- Costello, E. J., Angold, A., Burns, B. J., Stangl, D., Tweed, D., Erkanli, A., & Worthman, C. M. (1996). The Great Smoky Mountains Study of Youth: goals, design, methods, and the prevalence of DSM-III-R disorders. *Arch Gen Psychiatry*, 53, 1129-1136.
- Cummings, E. M. & Zahn-Waxler, C. (1992). Emotions and the socialization of aggression: Adults' angry behavior and children's arousal and aggression. In A. Fraczek & H. Zuckerman (Eds.), *Socialization and aggression* (pp.61-84). New York and Heidelberg: Springer-Verlag.
- Delfino, L. F., Bernal, M. E., & Rosen, P. M. (1976). Comparison of deviant and normal boys in home settings. In E. J. Mash, L. A. Hamerlunck, & L. C. Handy(Eds.), *Behavioral modification and families* (pp.228-248). New York: Brunner/Mazel.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son, T. J., Duncan, T. E., Eddy, J. M., Fagot, B. I., & Fetrow, R. (1994). The world of parents and peers: coercive exchanges and children's socia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3, 255-268.
- Dumas, J. E., & Serketich, D. R. (1994).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child maladjustment: A comparison of three process models. *Behavior therapy*, 25, 161-181.
- El-Sheikh, M., Cummings, E. M., & Reiter, S. (1996). Preschoolers' responses to ongoing interadult conflict: The role of prior exposure to resolved versus unresolved argum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665-679.
- Evans, G. W., & English, K. (2002). The environment of poverty: Multiple stressor exposure, psychophysiological stres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3(4), 1238-1248.
- Feldman, H. M., Dollaghan, C. A., Campbell, T. F., Kurslasky, M., Janosky, J. E., & Paradise, J. L. (2000).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 at ages one and two years. *Child Development*, 71, 310-322.
- Forehand, R., Gardner, H., & Roberts, M. (1978). Maternal response to child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Some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7, 121-123.
- Forehand, R., Wells, K., & Griest, D. (1980). An examination of the social validity of a parent-training program. *Behavior Therapy*, 11, 488-502.
- Garm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man, S. H. & Gotlib, I. H. (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Psychological Review*, 3, 458-490.
- Hart, C. H., Dewolf, D. M., & Burt, D. C. (1992). Linkages among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 outcome expectations, and parental disciplinary styl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 265-283.
- Hobfoll, S. E., Ritter, C., Lavin, J., Hulsizer, M. R., & Cameron, R. P. (1995). Depression prevalence and incidence among inner-city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445-453.
- Klerman, L. V. (1994). The health of poor children: Problems and programs. In A. C. Huston(Ed.), *Children on poverty*. New York: Cambridge.
- Kerr, D. C. R., Lunkenheimer, E. S., & Olson, S. L. (2007). Assessment of child problem behaviors by multiple informants: a longitudinal study from preschool to school ent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 967-975.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co-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71-583.
- Kuczt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99-806.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Lobitz, W. C., & Johnson, S. M. (1975). Parental manipulation of the behavior of normal and devia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19-726.
- Luthar, S. S. (1999). *Developmenta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iatry Series: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SAGE Publications.
- Luthar, S. S., Cushing, G., & McMahon, T. (1997). Substance abusers and their famili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S. S. Luthar, J. Burack, D. Cicchetti, & J. Weisz(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 risk, and disorder*. New York: Cambridge.
- McCord, W., McCord, J., & Howard, A. (1961). Familial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9-93.
- Moreno, J. K., Fuhrman, A., & Selby, M. J. (1993). Measurement of hostility, anger, and depression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511-523.
- Myers, D. G. (2007). Psychology of happiness. *Scholarpedia*, 2(8), 3149.
- Patterson, G. R. (1976). The aggressive child:

- Victim and architect of a coercive system. In E. J. Mash, L. A. Hamerlynck, & L. C. Handy(Eds.), *Behavioral modification and families*(pp.267-316). New York: Brunner/Mazel.
- Patterson, G. R., Fleischman, M. J. (1979). Maintenance of treatment effects: Some considerations concerning family systems and follow-up data. *Behavior Therapy*, 10, 168-185.
- Reis, J., Barbera-Stein, L., & Bennett, S. (1986). Ecological determinants of parenting. *Family Relations*, 35, 547-554.
- Rose-Krasnor, L., Rubin, K. H., Booth, C. L., & Coplan, R. J. (1996). Maternal directiveness and child attachment security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09-325.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ultz, D., & Shaw, D. (2003). Boys'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mily emotional climate, and pathways to early conduct problems. *Social Development*, 12(2), 440-460.
- Schultz, D., Izard, C. E., & Ackerman, B. P. (2000). Children's anger attribution bias: Relations to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9, 284-301.
- Shaw, D., & Bell, R. O. (1993). Developmental theories of parental contributors to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1, 35-49.
- Shaw, D., & Vondra, J. I. (1995).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predictors of early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3), 335-357.
- Snyder, J. J. (1977). Reinforcement analysis of interaction in problem and nonproblem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528-535.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Wahler, R. G., & Dumas, J. E. (1989). Attentional problems in dysfunctional mother-child interactions: An interbehavior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5, 116-130.
- Wahler, R. G., & Nordquist, V. M. (1973). Adult discipline as a factor in childhood imit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 40-56.
- Wasserman, G. A., Rauh, V. A., Brunelli, S. A., Garcia-Castro, M., & Necos, B. (1990). Psychosocial attributes and life experiences of disadvantaged minority mothers: age and ethnic variations. *Child Development*, 61, 566-580.
- Webster-Stratton, C., Kolpacoff, M., & Hollinsworth, T. (1988). Self-administered videotape therapy for families with conduct-problem children: Comparison with two cost-effective treatment and a control gro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58-566.

- Wei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eiss, B.,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2). Some consequences of early harsh discipline: Child aggression and a maladaptiv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style. *Child Development, 63*, 1321-1335.
- Weissman, M. M., Warner, V., Wickramaratne, P., Moreau, D., & Olfson, M. (1997).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10 years la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4*, 932-940.
- Yune, H., Kang, J. H., & Oh, K. J. (2009, June). 1-Year St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 Post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ASEBA Conference. Burlington, VT., USA.
- 논문 투고일 : 2011. 07. 18
1 차 심사일 : 2011. 07. 28
게재 확정일 : 2011. 08. 18

The Objective and Perceived Level of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Mother's Mental Health, Parenting Behaviors, and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ers

Youn-Hee Roh

Yonsei University

Ji-Hyeon Kang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bjective and perceived level of economy and its relationship with mother's mental health, parenting behaviors, and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ers. Data drawn from mothers and teachers of 238 preschoolers, ages 3-5, were used. Using the objective and perceived level of econom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Individuals categorized as high by objective and perceived level of economy, low by objective and perceived level of economy, high by objective and low by perceived level of economy, and low by objective and high by perceived level of economy were categorized as in-agreement/high group, in-agreement/low group, over-estimator group, and under-estimator group,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one-way ANOVAs and post-hoc analyse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in-agreement/low group and under-estimator group showed greater depression and anxiety than in-agreement/high group and over-estimator group. In addition, in-agreement/high group and over-estimator group showed greater affective parenting behaviors and lower aggressive parenting behaviors than in-agreement/low group and under-estimator group. In terms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mother, in-agreement/high group and over-estimator group were lower than under-estimator group. In term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mother, in-agreement/high group was lower than under-estimator group. However, in term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teach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by teacher, in-agreement/low group was lower than over-estimator group.

Key words : objective level of economy, perceived level of economy, mother's depression/anxiety, parenting behavior, problem behavior in preschoolers

부록. 실제 경제수준과 지각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유아의 문제행동(One-way ANOVA)

			1. 일치高	2. 지각高	3. 지각低	4. 일치低	<i>df</i>	<i>F</i> 값	사후검증 (LSD 방식)
정서적 반응성	어머니	<i>M</i>	-.20	-.16	.28	.11	(3, 234)	2.557	1<3 ^a , 2<3 ^a
		<i>(SD)</i>	(.88)	(.80)	(1.36)	(1.00)			
	교사	<i>M</i>	-.09	.14	-.05	-.22	(3, 232)	1.603	2>4 ^a
		<i>(SD)</i>	(.98)	(1.23)	(.96)	(.75)			
우울 불안	어머니	<i>M</i>	-.09	-.23	.33	.08	(3, 234)	2.548	1<3 ^a , 2<3 ^a
		<i>(SD)</i>	(1.07)	(.68)	(1.31)	(.96)			
	교사	<i>M</i>	-.07	-.01	.02	-.19	(3, 232)	.556	.
		<i>(SD)</i>	(.95)	(1.18)	(1.02)	(.84)			
신체적 불편	어머니	<i>M</i>	-.14	-.16	.27	.08	(3, 234)	1.898	1<3 ^a , 2<3 ^a
		<i>(SD)</i>	(.92)	(.68)	(1.39)	(1.01)			
	교사	<i>M</i>	.01	.21	.17	-.29	(3, 232)	3.366 ^a	2>4 ^b , 3>4 ^a
		<i>(SD)</i>	(1.02)	(1.27)	(1.30)	(.72)			
위축	어머니	<i>M</i>	-.13	-.20	.29	.12	(3, 234)	2.415	1<3 ^a , 2<3 ^a
		<i>(SD)</i>	(.88)	(.85)	(1.35)	(.97)			
	교사	<i>M</i>	-.19	.09	.20	-.08	(3, 232)	1.465	.
		<i>(SD)</i>	(.81)	(1.03)	(1.33)	(.96)			
주의 집중	어머니	<i>M</i>	-.16	-.27	.32	.14	(3, 234)	3.716 ^a	1<4 ^a , 2<3 ^b , 2<4 ^a
		<i>(SD)</i>	(.92)	(.88)	(1.29)	(.93)			
	교사	<i>M</i>	.00	.23	-.07	-.15	(3, 232)	1.603	2>4 ^a
		<i>(SD)</i>	(1.13)	(1.07)	(1.05)	(.88)			
공격 행동	어머니	<i>M</i>	-.20	-.04	.25	.09	(3, 234)	1.844	1<3 ^a
		<i>(SD)</i>	(.92)	(.88)	(1.33)	(.95)			
	교사	<i>M</i>	.03	.08	.13	-.27	(3, 232)	2.247	2>4 ^a , 3>4 ^a
		<i>(SD)</i>	(1.11)	(1.08)	(1.23)	(.81)			

a : $p < .05$, b : $p < .01$